

WORLDVIEW SPECIAL



교회 바로보기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기획하고 진행된

교회탐구 포럼의 4가지 주제중 3가지를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교회탐구 포럼 01.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교회탐구 포럼 03.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교회탐구 포럼 0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교회 탐구 포럼의 취지

☉ 송인규

한국 교회에 변화와 갱신, 개혁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진부하게 느껴진다.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그런 모임도 많고 여러 전문화된 기구나 그룹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곳저곳 행사로 분주한 모습도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교회 탐구 포럼>과 관련하여, 무슨 또 하나의 “이벤트”인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경험하거나 들었던 적도 없고 비슷한 개념이나 메커니즘에 접근한 적도 없는 미(未)경험적 무지이고, 다른 하나는 친(親)경험적 무지로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경험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 교회의 만성적인 친경험적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교회 탐구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는 두 가지 전통적 방도 모두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방도에는 신학 정규과목의 수강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과 목회 현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한국 교회의 진정한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방도 모두

제한적으로 기능하는데, 전자는 주제 제약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신학-목회 분열증을 역기능적으로 가속화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압도되어 교회의 수적 증가에 집착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이해의 패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친경험적 무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것에서 한시바삐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극과 각성이 요구되는데, 교회 탐구는 이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편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한국 교회의 회복은 현 교회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 회복적 시각이 필요한데, 회복적 시각은 비판의식과 더불어 회복에의 열망이 보유되어야 한다. 비판가는 상대방을 지적하는 비판의식에 모든 것을 걸지만, 예언자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유하되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공동체의 회복에 최종 목표를 둔다. 비판의식에 회복적 시각을 갖춰 거룩한 동일시를 지향한다.

교회 탐구 없이는 회복에의 방향 제시가 불가능하고, 선지자의 마음 없이는 회복에의 동기 유발이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교회 탐구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교회탐구 포럼01]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제1회 교회탐구포럼은 “직분자의 역할,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표제로 2011년 4월 30일 사랑의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교회 직분의 중요성을 통감하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현상이 더 맑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집을 모아 한 권의 책자로 출간하였다. 한국 교회를 모른다면 한국 교회의 개혁도, 미래도 없다. 교회 직분은 교회는 물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장로직(목사와 장로)의 목회론적 연구 - 목사와 장로의 목회적 협력과 균형- 정주채(향상교회 담임목사,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 진정한 목회적 협력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 신학적 배경과 목회적 지혜를 함께 소개한다. 직제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보다 실천적인 반성과 갱신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부분(1-3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장로직분에 대해 찾아보고, 이런 직분에 관한 말씀들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천돼 왔는지를 살펴본다. 본문에 해당하는 4-6장에서는 직분과 관련된 한국 교회의 병리현상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 있을지를 살핀다. 그리고 개 교회를 예로 들어, 특별히 향상교회에서 성경적인 장로직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결론부에서는 교회 직분의 지상 과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흐르게 되고, 직분은 책임과 헌신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로 변질되고 말 것이므로 회개와 갱신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교회 본질을 살려 내는 교회 직제의 바른 설계

배종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배종석 교수는 신학적 원리와 경영학적·사회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 직제가 교회의 본질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심층적 진단 및 방향 제시를 시도했다. 필자에 의하면, 직분은 교회 조직의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살려 바른 직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제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특정 시대와 문화의 맥락에 적응해 가야 한다. 직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 그리고 직제 설계에 영향을 주는 성경적 패러다임과 역사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교회 직제 설계를 위한 핵심 원리로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 직분의 평등과 사역의 차등 원리 및 공동체와 조정을 위한 호혜성 원리 등이 있다. 또한 직무와 역할, 자격과 선발, 지원과 관리 등의 설계 변수들은 역사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

을 것이고 성경적 패러다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직제와 관련된 성경의 정신과 개혁장로교의 정치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훈련과 준비가 요구된다. 셋째, 직분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표출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표현 방식이며, 겸손을 훈련하고 상호조력을 이루어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론부에서 필자는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급선무라고 말한다. 아무리 직제를 제대로 설계하여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직분자와 성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제 승상적 자세도 곤란하지만 직제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마무리한다.

직분자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송인규 교수는 교회의 직분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명령에 근거하여, 그 의미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그는 이 논고를 통해 “사회 포괄적 직분론”에 대해 설명하며 그리스도인 직분자들이 세상 속 사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했다. 또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세상관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분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도와 지침을 제시했다. 필자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 및 각종 직업 종사자로서의 사회 활동을 통한 세상 속 사명 실행의 방도를 주창했는데, 이를 위한 세 가지 점검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의식,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제시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신앙적 상태와 세상 속 사명의식이 확인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삶의 활동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자신의 직업 영역이나 사회적 신분/역할을 고려해 세상 속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과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집중함으로써 세상 속 소금과 빛의 사명을 논할 수도 있다. 삶의 활동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 그 활동/사안과 연관해 구체적인 시행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직분에 대한 의식 조사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정재영 교수는 현재 한국 교회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인식과 직분자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직분자 교육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한국교회탐구센터의 ‘평신도 리더십 포럼’의 일환으로 IVF 복음주의연구소가 주관하여 교회 직분자인 장로, 안수집사 또는 남자 권사, 그리고 여자 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최초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이 다소 작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정확한 근거 없이 논의되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직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회 직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